

## 서점, 그 모험과 유혹의 공간

어느 어설픈 '책도둑' 얘기

서하진 | 소설가·재능대학 문예창작과 교수

**월** 말이면 잡다한 항목의 크고 작은 금액이 적힌 카드 대금 청구서를 받는다. 예상을 훨씬 웃도는 총액을 보고 절끔 놀라고는 꼼꼼히 항목들을 점검하는 수순을 밟는데, 어쩌다 충동적으로 통신판매를 이용한 것 외에는 대개 고정적인, 어쩔 수 없는 지출이 대부분이게 마련이다. 그렇더라도 이때만큼은 알뜰주부 티를 내느라 이걸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걸 뭘였지? 해가면서 별 소용에 닿지 않는 반성을 하곤 한다.

더 줄이기 위해 반성하는 것이지만 애개, 고작 이거였어? 싶어서 다음달에는 기필코 두배쯤 더 늘어야지 각오를 다지는 예외적인 항목도 있으니 휘발유 값과 책값이 그것이다. 그것들은 각각 내 몸과 정신의 이동거리를 알게 하는 수처다. 단 한편의 제대로 된 글을 완성하지 못했을 때라도 두 항목의 총액이 많은 달이면 무언가 쓰기 위해 상당히 노력한 느낌이 들어 흐뭇해지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다짜고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서점으로 찾아가야만 한다. 문화인 흉내 내기. 덜 떨어진 속물근성 같지만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오랜 습관이다.

글로벌 밥 벌어먹는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 어릴 적부터 나는 책 욕심이 많았다. 내 용돈으로 책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중학교에 들어가서였는데, 이 때 주로 이용한 곳은 집 근처의 헌책방이었다. 턱수염을 기른 주인 아저씨는 손바닥만한 삼중당 문고본을 보이는 족족 사 모으는 어린 여자아이에게 이따금 지난 번 책을 다 읽었니, 하고 묻기도 하고 《보바리 부인》을 집었을 때는 아직 네가 읽을 책이 못된다며 빼앗기도 했다.

일요일이면 천장까지 책이 쌓인 어둡신한 책방에서 먼지 나는 책들을 뒤적이는 동안 그 아저씨가 우그러진 양은 쟁반을 밥상 삼아 신 김치를 우적우적 씹으며 점심을 먹는 모습을 볼 때도 있었다. 밥그릇을 비우고 나서 그 아저씨가 안쪽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 내 또래의 남자 아이가 물이 담긴 대접을 들고 나왔다. 아저씨와 그 아이는 너무나 닮아 있었으며 똑같이 꾀죄죄했다. 그들의 삶은 오래 묵은, 눅눅한 종이 같았다. 어쩌면 사는 일이 단순하지 않다는, 내가 알고 봐온 것보다 훨씬 어두운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싸여 돌아오면 손바닥과 입안이 먼지로 갈갈했다.

청계천 고서점으로 진출한 것은 고등학생이 된 후였으며 종로서적을 자주 찾은 것은 그보다 훨씬 지나서였다. 그럭저럭 책꽂이가 꼴을 갖춰갈 무렵 나는 매우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 대학원 첫 학기, 학과의 조교로 일하고 있을 때였다. 일요일이었고 꽃샘바람이 몹시 불던 날이었다.

교보문고의 매장을 한시간 남짓 둘러본 끝에 나는 두어권 원하는 책을 사고는 일주일분 양식을 장만한 기분으로 느긋하게 시집 코너에 들렀다. 거기에 민음사에서 발행한 《김수영 전집》이 진열돼 있었다. 깡마른 김수영의 옆 얼굴이 그려진 표지를 들춰보고 시와 수필과 시론들이 일목요연하게 실린 목차를 훑는 동



일러스트레이션 | 최정규

안 나는 왜 그랬을까, 그 책이 너무나 탐이 났다. 물론 김수영은 내가 좋아하는 시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내 스타일은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내게는 이미 그의 헌 시집이 몇 권 있었다.

지갑을 열고 다 알고 있는 잔액을 확인하는 동안 내 가슴이 무섭게 뛰었다. 고 쓰고 싶지만 사실 나는 전혀 흥분되지 않았다. 늘 해오던 일처럼 자연스럽게 나는 그 책을 마침 입고 있던 두터운 점퍼 속으로 밀어 넣었다. 매장에 넘쳐나는 사람들은 저마다 책을 읽느라, 고르느라, 계산을 하느라 바빴으므로 아무도 내 비행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나는 품안의 책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정당하게 구입한 두권의 책을 가슴에 꼭 붙여 들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계산대를 지나고 간이 휴게소를 지나칠 때까지 태연한 걸음을 유지한 나는 문을 나서자마자 짧은 다리를 최대한 빨리 돌려 그곳을 벗어났다. 버스에 올라타서도 누가 채어갈 듯이나 책을 꼭 부여안고 집으로 온 나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서야 비로소 큰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그날 밤을 꼬박 새워 책을 읽었다.

그것은 정말 각별한 기분이었다. 모험을 지나, 위험을 무릅쓰고 손에 넣은 책이 그처럼 대견할 수가 없었다. 책꽂이 한가운데 꽂힌 그 책을 방을 나며 들며 쳐다보면서 누리던 그 은밀한 기쁨이라니.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는 고전적인 얘기를 믿어서가 아니라 나는 정말 스스로를 도둑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학창시절 나는 그 흔한 반성문 한번 쓴 적 없는 모범생이었다. 대학에서도 얌전하고 조용한 아이였고 그 후에는 친절하고 예의바른, 성실한 조교였다. 그런 내게 그 파격적인 일을 거리낌없이 감행하게 한 김수영을, 그의 책을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제법 돌출적인 행동을 한 스스로가 뿌듯하기까지 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다. 매주 일요일이면 들르던 교보문고가 책을 읽고 고르고, 구입하는 곳 이상의 의미를 띠게 된 것이었다. 그곳은 이제 모험과 유혹의 장소였다. 어쩌면 꼭 그렇게 책을 사고 나서, 돈이 딱 떨어지고 나서야 탐나는 책이 눈에 띄는 것인지. 눈을 질끈 감고 유혹을 떨쳐내고 돌아서면 허전한 마음에 눈물이 펄 돌 지경이었다. 일요일의 외출을 삼가자고 마음먹어 봤지만 오후가 되면 어느새 서가 사이를 거닐며 책을 힐끔힐끔 곁눈질하는 거였다.

딱 세번 더 나는 책을 훔쳤고 그 세번째 날 경비를 서는 남자에게 붙들렸다. 계산대를 지나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내 앞을 막아서며 그 남자가 이렇게 말했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창피 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는 말쑥한 양복 차림이었고 표정은 온화했지만 음성만은 대단히 위압적이었다. 나는 겁에 질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그를 따라갔다. 서가 뒤쪽에 숨어있는 문을 들어서자 올망졸망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교복 차림의 학생들, 땀국이 흐르는 얼굴의 초등학생, 그리고 신사복을 입은 남자도 하나 섞여 있었다. 벌써 울음을 터뜨린 여고생, 잔뜩 겁에 질린 어린 여자아이. 아저씨, 잘못했어요, 하고 연신 빌고 있는 그들의 손에 저마다 들린 책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물을 들고 차례로 죄상을 고백하는 사람들 틈에서 나는 고개를 외로 쪼고 서서 기다렸다. 그저 장난 삼아 한번 해봤다고 말할까, 아니면 책값이 없는 가없는 고학생

역할을 할까 고민하면서.

심문을 담당한 남자는 내가 내민 신분증을 보고 혀를 끝끝 찼다. 지갑 속에 있던 유일한 신분증이 하필이면 도서 대출증이었던 탓이었다. 그는 손톱만한 사진과 내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진짜 대학생 맞아요? 하고 물었다. 당장이라도 그가 확인 전화를 할 것만 같아서 나는 오금이 다 저렸다. 대학생이 이러니, 대체 누굴 믿고 책장사를 하나 말아야, 하던 그 남자가 혹시 상습범 아니에요? 하고 기습적으로 물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내가 지을 수 있는 최대한의 슬프고 억울하고 애처로운 표정으로 그 남자를 쳐다봤다.

다행히도 그는 내 연기에 속아 주었고 나는 그가 내민 종이에 이름, 생년월일, 주소 따위를 적고 앞으로는 결코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쓰인 글귀 밑에 사인을 하고 풀려났다. 미수에 그친 책, 이성복의 시집을 암전히 내려놓고서. 어떻게 그곳을 빠져 나왔는지 모른다. 다만 호주머니를 탈탈 털은 돈이 천오백원의 책값에 못 미쳤던 것이 책을 훔치다 들켰을 때보다 더 창피했던 것만은 생생히 기억에 남았다. 그리고 후일담 한 토막. 시집 코너에서도 이성복만은 애써 외면하던 어느 날 나는 최후의 결전을 치르는 전사의 심경으로 그의 시집을 훔쳐냈고 천만다행으로 들키지 않았다. 나는 그 책을 온통 외출 때까지 끼고 살았다.

지금 교보문고는 예전에 내가 이상한 방식으로 책을 얻었던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화한, 총체적인 문화공간이 됐다. 나는 그 번잡함이 싫어 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책을 산다. 전자책이 널리 보급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하니 두툽한 책 문치를 받는 일도 드물어질지 모른다. 공책보다 크지 않은 기구를 휴대하고 다니다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기만 하면 화면에 글자를 불러내 종이로 된 책처럼 읽을 수 있을 거라 하니, 참 좋은 일이다. 종이의 원료가 되는, 술하게 베어지는 나무들이 먼저 박수를 치며 기뻐할 것이고 이사할 때마다 골칫거리로 등장하는 무거운 책더미 따위는 옛날 얘기가 될 터이니.

훔쳐서라도 갖고 싶어하던 그 책들이 무시로, 무제한으로 공급될 것을 생각하면 어쩐지 억울하고 마음이 바빠진다. 그렇게 되기 전에 얼른 훔쳐서라도 갖고 싶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책을 써야지 싶어서. ●